

# 1930年代의 科學 大衆化運動

## 40年前 科學데이

한개의 시험관은 전세계를 뒤집는다

「科學의 基礎를 굳게 닦자」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것의 승리자다

玄源福 <漢陽大講師>

1930년대는 우리 民族의 暗黒期였다. 日本帝國主義가 大陸侵攻의 발판을 이땅에 굳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人的·物的資源을 마음대로 收奪해 가던 이 어렵고 우울한 時節에 汎民族인 科學의 大衆化運動이 遼遠의 불길처럼 自主的으로 번져나갔다는 사실은 科學史의 태두리를 넘어서 우리의 民族史에도 길이 남을 事件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불행히도 이 運動은 日帝의 彈壓으로 수삼년의 짧은 壽命으로 그쳐버렸으나 근 半世紀가 지난 오늘날, 앞서간 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도 전혀 뜻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科學의 달을 맞아 40여년전 「科學데이」行事를 포함한 당시의 科學大衆化운동의 일면을 고찰해 본다.

### 1. 時代的 背景

日本은 1919년 제 1차 世界大戰이 끝나면서 韓國을 좋은 投資市場으로 겨누기 시작했다. 식민지의 풍부하고 값싼 勞動力은 확실히 매력적인 投資條件이었다. 이리하여 1926년 赴戰江電源을 개발하여 에너지源을 확보하는 한편 이 電力을 이용하여 연간 50萬t의 硫安생산능력을 가진 興南窒素肥料工場을 건설함으로써 이땅을 근거로 하는 日帝의 工業化는 막을 올렸다. 이무렵 日本資本의 對韓進출을 더욱 재촉한 것은 1929년 뉴욕·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世界經濟大恐慌이었다. 日本의 工業生産高는 여지없이 鈍化되고 대량의 解雇事態가 번져 日本社會는 커다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日本은 새로운 突破口

를 滿州事變에서 뚫고 1933년에는 滿州國을 세웠다. 日本의 失業者郡은 메지어 大陸으로 배출되었고 滿州는 日本資本의 獨占市場으로 편입되었다. 더우기 1931년 日本본토에서는 重要産業統制法과 工場法이 시행을 보게 되자 日本工業資本은 이런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韓國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1937년 中日戰爭이 터지자 日帝가 이땅에서 벌인 工業化는 軍需工業에 편중하게 되었다. 당시 工業化의 主役은 三井系·三菱系·伊藤忠系등 1백여개의 日本企業이었다. 이에 따라 鑛工業部門의 노동인구는 43년째에 이르러 73만명으로 팽창했으나 우리나라 기술자의 수는 통틀어 그중 1천 6백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거의가 中級이하수준이던 이 기술자도 그나마 금속이나 화학업공분야의 종사자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韓國人고급기술자양성을 제도적으

## 30年代의 科學 大衆化運動

로 막은 日帝의 科學教育 政策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한편 世界科學技術史의 立場에서 볼 때 30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科學技術의 成長期를 맞게 된다. 現代科學技術의 얼굴처럼 4년 TV·高分子合成製品·레이저트트機·液體燃料로켓·抗生物質은 거의가 30년을 전후해서 발명되었다. 오늘날 自然科學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情報理論 原子核物理, 物性物理도 모두가 20년대말에 시작되어 30년대에는 바야흐로 科學의 大發見時代로 들어갔다. 세계의 列強들은 科學技術을 富國強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앞을 다투어 研究開發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科學技術의 역할에 눈을 뜬 국내의 일부 지식층은 日本資本主義의 收奪行爲로 말미암아 「國運家運」이 모두 衰亡할 지경에 이른 우리 民族이 更生하는 길은 科學技術의 振興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이것은 學族的인 呼應을 얻어 마침내 30년대의 科學技術振興運動으로 번져나간 것이다.

### 2. 科學데이

30년대의 科學大衆化운동의 산파역은 發明學會였다. 본시 이 단체는 10월 1일 創立總會를 갖고 科學知識의 普及과 工業常識을 鼓吹하기 위해 발족했으나 財政難으로 얼마 안가서 긴 冬眠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30년대로 접어들자 韓國人의 發明活動이 활발해졌고 特許登錄件數도 크게 늘어났다. 마침내 發明學會가 오랜 잠에서 깨어날 때가 온 것이다. 32년 4월 1일 다시 문을 연 發明學會는 뜻밖에도 發明에 관한 많은 質疑와 出願手續에 관한 相談이 몰려와 이 단체를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은 收入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본시 發明人과 그 同好家들의 모임인 이 단체는 당초 내건 목적을 밀고 나가기에 힘에 限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33년 6월 法曹界의 李仁을 理事長으로 추대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人士들을 참여시킴으로써 學族的인 기관으로 발전시켰다. 李仁은 發明學會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物産장려가 원대한 實力배양의 길이었듯이 또 하나 진박한 實力배양의 길은 發明이다. 끊임없이 진보해나아가는 人類生活에서 發明이 뒤떨어져서는 결국 被壓迫國家로 그치고 말 것이니 日本이 우리를 집어 삼킨 것도 그들이 먼저 科學文明에 눈을 뜬 때문이 아닌가. 우리 民族이 살아나는 길은 發明을 장려함으로써 실력을 기르는 萬金之策이 있을 뿐이다. 이런 분분한 생각에 잠겨 있던 차에 32년 10월 어느날 發明家 金容瓘(당시 發明學會專務理事)이 나를 찾아왔다. …金容瓘의 제안은 發明家만으로는 사업이 어려우니 社會名士들을 망라하여 學會를 재발족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또 나에게 辯理士의 자격도 있으니 發明家の 각종 出願에 件理를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참여해달라고 한다.

金容瓘의 말은 이때에 내가 생각하던 바와 일치하므로 나는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였고…… 發明學會를 새로 발족시켰다.

(李仁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73년 3월 24일)

새로운 체제를 갖춘 發明學會가 科學大衆化운동을 위해 우선 밀고 나간 사업은 綜合科學誌인 「科學朝鮮」의 創刊과 「科學데이」의 行事였다. 科學의 大衆化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 대중의 눈을 科學에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科學週間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떠들석하게 벌여서 社會의 耳目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發明學會는 科學데이를 설정하고 그날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사준비를 위한 科學데이 實行會는 尹致昊·李仁·宋鎮禹·鄭廣朝·金容瓘·方應謨·李鍾麟·呂運亨·李相協·李圭顯·柳光烈·朴準鎬·朱耀翰·朴熙道·金鐸遠·玄得榮·金性洙·金炳魯·朴文秉·俞億兼·朴吉龍·玄相允·梁在昶·鄭寅寬·崔奎東·李康賢·金昶濟·趙東植·李賢在·趙喆鎬·李潤柱·李東善·安鍾元·金美理士·金活蘭·洪愛施德·玄東完등 社會각층의 지도급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實行會는 34년 3월 8일 서울 淸進洞의 李仁變護士는 사무실에서 열린 제 1회 위원회에서 칼즈 다윈의 忌日인 4월 19일을 「科學데이」로 정하고 科學週間의 중요한 行事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주요한 行事は (가) 兒童 및 婦人들에게 각각 알맞는 과학지식강화·幻燈·映寫會 등을

개최하고 (나) 中等정도이상의 학생에게 필요한 강연강좌 또는 실험회를 개최하며 (다) 見學團을 모집하여 科學館, 博物館, 工場, 그밖의 중요기관을 견학하고 (라) 특히 科學振興에 관심있는 人士들이 모여 自然科學 지식 보급에 관한 討論을 한다는 것이었다.

제 1회 「科學데이」 行事는 34년 4월 16일부터 金容瓊의 「科學知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라디오강연이 電波를 타므로써 막을 올렸다. 4월 19일에는 서울 YMCA 鍾路강당에서 가진 李晶燮의 「科學의 概念」, 李采鎬의 「産業과 發明」, 安東赫의 「化學工業의 最近傾向」등 강연회에는 8백여명의 청중이 모여들었다. 4월 20일에 見學團은 科學館·中央電話局·中央試驗所·京城紡織〈株〉 등을 두루 돌아보았다.

### 3. 科學知識普及會의 활동

「科學의 基礎를 굳게 닦자!」

「한個의 試驗管은 全世界를 뒤집는다!」

「科學의 勝利者는 모든 것의 勝利者다」

「科學의 荒無地朝鮮을 開拓하자!」 「科學은 힘이다. 배우고 應用하자!」등의 標語를 내걸고 깃발을 올린 이 行事에서 가장 뜻있는 모임은 4월 22일 서울市 貫鐵洞의 百合園에서 열린 科學知識普及會였다.

俞億兼·李甲洙·朱鍾宣·李榮俊·朴吉龍·金定洙·吳競善·金昶濟·金麟伊·玄得榮·鄭寅寬·李詳奎·尹日善·朴準鎬·李采鎬·徐主擇·朴文燮·金容瓊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이 모임은 뒷날 科學의 大衆化운동의 母體를 탄생시켰다. 이날 의제는 ①科學의 大衆化 方法 ② 科學知識普及機關의 設立과 그 形態 ③ 理化學研究機關의 設立문제 ④ 科學知識普及의 方法論이었다. 이들은 科學知識普及機關의 設置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34년 7월 5일 서울 시내 太西館에서 마침내 科學知識普及會의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科學知識普及會의 發起文과 目標와 主張은 다음과 같다.

〈目標〉 生活의 科學化·科學의 生活化

〈主張〉 우리의 모든 生活方法을 科學的으로 改善하자! 一切文化運動의 基礎를 科學으로 다시 싸하 올리자! 다가치 손잡고 科學朝鮮을 建設하기 爲하여奮起하자!

〈發起起〉 二千萬 朝鮮民衆은 生活을 要求한다. 生活을 要求하기 爲한 科學을 要求한다. 現代生活은 科學이 안이고는 營爲할 수 없으므로 써다. 배꼽흔 者가 덕을 것을 찾는 것과 가티 목마른 者가 마실 것을 찾는 것과 가티 時急하게 焦燥하게 科學을 要求한다. 그러나 밀면 열릴 門을 밀줄을 모르고 잇섯으며 파면 솟아 나올 물을 팔 줄을 몰라서 해매지아니하였는가?

연장을 작만하면 밭을 起耕할 것을! 씨를 뿌리면 收穫은 반드시 잇슬것을! 갈지안고 뿌리지 아니하여 科學의 荒原 그대로의 朝鮮이 되어있다. 科學知識普及의 必要는 잇는가 업는가?

보라! 先進諸外國에서는 이미 成長된 專門科學을 應用하여 高度의 文明과 富強을 이루었고 그것을 더욱더 一般民衆의 生活과 密接하게 關係시키기 爲하여 通俗化 普通化하기에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 民衆속에서 擴大되고 精銳化한 科學知識을 拔萃하여 새로운 좀더 高度의 專門科學을 造成한다. 그런데 朝鮮은 엇더한가 우리는 先進諸外國의 이미 生活化된 것과 高度化된 또 되면서 잇는 一科學을 가져다가 그것을 極히 初步的으로 普及시키며 나아가서는 自主的으로 專門科學을 造成하고 또 推進시키기까지 힘써야할 重重疊疊한 任務압해 서있다. 그러기 爲한 科學에서 科學을 普及시키기에 남보다 倍以上의 努力을 要하는 것이다.

남들은 한사람이 할 일을 우리는 두사람 이상의 힘을 合해야 하고 남들은 한時間에 할 일을 우리는 쉬지안코 두時間以上하여야 할 所以가 거기에 잇는 것이다.

多言을 要할것도 업이 科學은 自然法則의 示顯者요 現代生活의 指揮者요 工業의 案内者요 收護의 增加者요 疾症의 征服者요 迷信의 打破者다.

우리가 다같이 이 科學을 잘 公開해 줄 適切한 機關建設을 기다린지 이미 오래였다. 비록 세느것스나 다 一般民族의 絶對한 無言의 強要에 依하여 「科學知識普及會」를 組織化하기로 發起한다.

### 30年代의 科學 大衆化運動

普及會는 曹晚植·宋鎮禹·方應謨·呂運亨·李相協·金性洙·金東元·朴承穆등을 顧問으로 하고 尹致昊가 會長이었으나 뒷날 副會長이던 李仁이 會長을 계승했으며, 李勳求·玄相允·崔奎東·趙東植·尹日善·異河潤·玄東完·李軒求·朱耀翰 등이 研究委員으로, 李春昊·安東赫·李甲洙·趙福成·崔允植등이 또 財政委員으로 辛泰嶽·朴興植·韓慶錫등이 選出되었다. 普及會는 서울에 本部를 두고 地方에 支會를 두는 全國的인 조직을 가졌다. 주요한 사업은 科學知識의 普及과 一般生活의 科學化·產業增進을 돕기 위해 ㉠ 科學圖書의 편찬발간 ㉡ 학교의 자연과 학교육에 관한 조사 ㉢ 科學大衆化방법에 관한 조사 ㉣ 강연회, 좌담회, 실험회, 移動과학보급대 전람회, 見學團등의 행사 ㉤ 科學映畫의 촬영 및 상영 ㉥ 科學標本의 제작 판매 催급대리 ㉦ 年例行事인 科學데이의 실행 ㉧ 通俗과학잡지의 발행 ㉨ 전면적 文盲退治사업 등으로 설정했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내는 會費로 충당하기로 하고 곧 전국적인 會員모집 운동을 전개했다.

발족 1년만에 普及會는 平壤·元山·信川·金泉 등에 支部를 결성하고 그 會員수는 백명을 넘었으나 會費로서는 財政을 감당하기 어려워 會長團 특히 李仁의 거출금으로 간신히 꾸려나갔다.

한편 普及會는 科學敎育의 大衆化·女性의 生活科學·어린이의 科學敎育·農村의 科學化 등 계층별로 科學의 大衆化를 深化시키는 方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열었다. 예컨대, 34년 12월 10일 서울市內 百合園에서 열린 「在京城理化學博物農家家事敎育家座談會」는 貞信女學校의 尹球淳·崔良熹, 梨花女高의 李德象·徐洗璉·金昶濟, 培花女高의 李德鳳, 同德女高의 朴璋烈, 京城女商의 宋玉璇, 京城師範의 朴炳建, 養正高普의 崔在鵬, 京城農業의 金雄珪등이 모여 어린이들의 遊戲·실험·채집·기계·模型·玩具선택 등에 관해 토의했다.

科學讀本의 편찬사업은 李仁·李軒求·曹應天·李春昊·安東赫·鄭文基·趙福成·李甲洙·朴璋烈·李允宰등을 委員으로 하는 편찬위원회를 구

성하고, 太陽系·地球鑛物·植物·動物·水産物·保健衛生·醫學常識·農藝常識·工業大意·衣服과 衣服地·飲食과 營養·住宅과 庭園·電氣와 其應用·交通과 運輸·通信과 其發達·國防과 其設備·라디오와 無線知識·科學과 人生·發明과 發見·朝鮮文化와 發明등 21科로 나누기로 했다. 수준은 普通學校 2,3년 정도로 통속적으로 쉽게 편찬하되 원고의 文體는 詩人 金億이 담당 정리하고 한글의 마지막 校閱은 李允宰등에 맡기기로 했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科學을 소개해서 일반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해를 돕자는 뜻에서 당시 普及會의 사업에는 文人들의 도움이 컸으나 이 平易性을 놓고 科學者와 文人간의 충돌도 가끔 있었다. 35년 4월 22일 百合園에서 普及會가 주최한 科學普及座談會에서 文人과 科學者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爭論 하나를 소개한다.

〈異河潤〉科學에는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이 있는데 「科學朝鮮」誌에서는 그것을 잘 구별해서 일반이 잘 알도록 철저한 기사를 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우기 文體는 좀 더 흥미를 끌만큼 쓰시기 바랍니다.

〈金容瓏〉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이들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같은 기사를 가지고도 대중이 흥미를 끌만큼 文體를 만들기는 꽤 어렵더군요. 여러 文士께서 좀더 科學을 이해하신다면 흥미있게 과학기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異河潤〉文士들보고 科學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보다 科學者이 글쓰는 법을 배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金容瓏〉네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나 대체로 科學者들은 實科學문으로 파고 들어가 시험관이나 天秤과 같은 것만을 벗삼아 온 까닭에 文章의 美化는 대개 서투르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金億〉文章이 서투르다기 보다 전혀 쓸 줄 모른다는 것이 옳은 표현인 듯 합니다.

〈金容瓏〉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니 전문가로서는 누구나 門外漢에 대한 관념이 그럴 것입니다. 科學者들의 생각으로서는 文士들이 科學을 모르고 글쓰는 것이 보기에 거북하더군요.

이때 李鍾麟이 『文士들이 글 잘 쓰는 것과 科學者가 科學을 아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하고 싸움을 가로막았다 (「科學朝鮮」 35년 6월호).

그러나 당시의 과학자와 문인간의 협조는 매체로 잘 이루어졌다. 普及會는 다음과 같이 金岸曙作詞·洪蘭坡作曲의 「科學의 노래」도 제정했다.

(1) 적은 몸에 空間은 넘우도 넓고

이목숨에 時間은 뜻업다하나  
東西南北 上下를 電波가 들며  
새寄別을 낫낫이 알려주거니

(2) 두다리라 부시라 헛된 迷信을

이날와서 그누가 미들것이라  
아름답은 科學의 새론探究에  
불지어다 世界는 밝아지거니

普及會가 발족한 후 처음으로 주관하는 제 2회 科學데이 行事는 각계의 조직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더욱 짜임새 있게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다.

35년 4월 16일 朴吉龍의 「生活의 科學化」라디오 강연으로 서막을 올린 이 행사는 당일인 4월 19일 새벽부터 서울과 지방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에 科學데이旗를 달아주어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기는 以文堂이 2천장이나 기증해 온 것이다. 그밖에 東亞日報·朝鮮中央日報와 天一藥房이 1만 1천여장의 포스터와 4장의 會旗를, 興一社와 和信商會는 모두 15만장의 전단을 기증해왔다.

이날 下午 1시부터는 자동차행진이 벌어졌다. 朝鮮蓄音器商會·東亞日報·朝鮮中央日報·以文堂 등 19개 民族기업과 단체와 주최측에서 동원한 54대의 자동차는 「科學의 勝制者는 모든 것의 勝制者다」「한개의 시험관은 全世界를 뒤집는다」는 표어와 科學데이旗를 달고 東亞日報社 앞을 출발했다. 이 行列은 科學의 노래를 연주하는 少年軍樂隊를 앞세우고 鍾路—東大門—乙支路世宗路를 한바퀴 돌고나서 해산하니 下午 3시 반이었다.

이날 무드는 저녁 8시 YMCA 서울회관에서 가진 科學데이식 및 기념 강연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회관은 초저녁부터 초만원에 이른 가운데 李仁의 開會辭로 시작되었다. 식은 京城保育學校 合唱隊가 科學의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끝나고 곧 강연회로 들어가 崔晃·尹柱福·呂運亨이 강연했다. 4월 20일에는 53명의 見學團이 科學知識普及會와 科學데이旗를 앞세우고 科學館, 龍山鐵道局工場, 永登浦의 京紡을 두루 돌아보았다. 4월 22일에는 科學의 大衆化 方法등을 모색하는 科學普及세미나가 百合園에서 열렸다. 이리하여 科學週間的 말미는 於義洞(현재 孝悌) 보통학교(4월 23일), 壽松洞보통학교(4월 24일) 滌洞보통학교(4월 25일)에서 가진 科學映畫상연회가 장식했다. 製鐵·라디오·石油·가솔린機關·生存의 투쟁 등 과학영화를 참관한 시민은 8천여 명에 이르고 넓은 운동장은 설자리조차 없이 들어찼다. 제 2회 科學데이에 쓰인 돈은 모두 9백여 원이나 되었으나 民族제신문사와 기업과 李仁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한편 平壤 開城을 비롯한 地方에서는 성대하게 科學데이 行事를 치렀다.

이렇게 해마다 성대했던 이 行事도 日本警察의 査察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37년 제 4회부터는 旗行列·集會·강연회등이 금지되었다. 中日戰爭이 일어나고 日帝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38년의 제 5회 科學데이 行事는 宣傳塔을 세우는데 그쳤다. 이리하여 30년대 末에는 行事도 소규모의 見學團을 조직한 것이 고작이었다.

#### 4. 科學大衆化運動과 매스·미디어

30년대의 科學大衆化運動은 民族紙등 매스·미디어의 적극적인 支援이 없었다면 그토록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34년 科學데이 實行會가 발족하자 民族紙의 論調는 일제히 이 行事를 支持하고 나서면서 學族의인 支援을 呼訴했다. 朝鮮日報는 『...科學데이를 紀念 또는 宣傳함으로써 自足하지 말고...이것을 基礎삼아 天才를 培養하는 獎學機關을 만들 것』(朝鮮日報 34년 3월 5일자 社說「科學과 朝鮮」)을 주장했고, 東亞日報는 『...이 先驅의 운동이 성의있게 進展되기만 한다면 全朝鮮의으로 적지 안흔 衝動을 줄 수 있을 것인즉, 地方에서도 이 事業에 和應하는 團體가 뒤를 이어 일어나기를』(東亞日報 34년 3월 5일자 社說「科學데이會와 그 事

## 30年代의 科學 大衆化運動

業)」권고했다.

民族紙들은 그들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밀고나 가는데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5년 普及會가 信川·元山 등 여러 地方에서 支部를 결성할 때마다 東亞日報·朝鮮日報·朝鮮中央日報는 科學강연회의 후원자가 되었고, 科學대이 行事마다 民族紙들은 어려운 財政에도 불구하고 物質的인 지원을 서슴치 않았다.

그중에서도 東亞日報는 科學研究機關과 科學 博物館設立운동에 앞장서서 論說과 特別論文으로 그 당위성과 支援을 呼訴했다. 그러나 民族 土地財閥이나 富豪들은 育英事業에는 巨額을 투자하면서도 理化學研究機關設立에는 關心을 보이지 않은채 이운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30년대에 民族紙들은 科學大衆化를 위해 대담할 정도로 지면을 할애해 주었다. 특히 東亞日報는 妹姉誌인 月刊「新東亞」를 통해 科學知識普及에 많은 노력을 했다. 33년 5월호 新東亞를 「科學號」로 엮어냈다는 것은 우리나라 綜合雜誌史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發明學會 理事長 李仁은 당시의 言論의 協力を 이렇게 述懷하고 있다.

『…日帝가 다른 집회는 모두 막으면서도 科學이라 名分을 내건 우리행사는 멋모르고 허가를 해주는 터라. 이런 기회에 민중을 움직이고 들쭉날쭉하게 하기를 노린 것이다. …나는 古下 宋鎮禹를 만나는 기회에 민중이 직육이는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 所儼의 일단을 말한 적이 있었다. 古下는 그런 내색은 아예하지 말라고 勸告를 주었으나 속마음은 들이 다 같았다. 당시 東亞日報 사장이던 吉下는 내가 돈은 못 대지만 紙面은 얼마든지 대주겠다. 科學普及運動은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당시의 각 언론기관은 과학행 사라면 여러날을 두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과학기사도 가득가득 실었다. 測雨器를 발명한 世宗大王, 거북선을 발명한 李忠武公은 물론이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金屬活字며 飛車등을 소개 하며 한편으로는 민족의 긍지를 일깨운 것이다. (李仁「나의 履歷書」한국일보 73년 3월 24일자)

30년대의 科學大衆化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디어중에는 科學綜合誌「科學朝鮮」이 있다. 33년 6월 創刊號를 낸 이 잡지는 光復전까지 우리나라 科學專門誌史上가장 長壽를 누린 刊行物이었다. 과학지식의 계몽은 물론 科學技術界의 輿論紙로서 또 科學大衆化의 理論紙로서도 「科學朝鮮」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科學저널리즘에 관한 몇몇 論文은 오늘날도 주목을 받을만한 洗鍊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또 『…少數에 지나지 않은 朝鮮의 科學者가 深奧한 研究에 열중하는 一面 象牙의 塔을 나서서 포앙카레나 피아슨등 大科學者가 實行하듯이 科學의 大衆化에는 留意하여 吾人의 運動을 支持하여 달라는 것』(金海琳「自然科學」·그 觀念과 普及」科學朝鮮 33년 11월호)이라고 말하면서 科學大衆化의 일차적인 책임은 科學者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맺음말

30년대의 科學大衆化운동은 같은 시대에 전개된 物產獎勵운동·農村振興운동·迷信打破운동·禁酒운동·文盲退治운동·民族保健운동 등 그밖에 日帝가 허용한 다른 활동과는 달리 불과 3~4년 만에 탄압의 대상이 되어 短命으로 그쳐버렸다. 그것은 이 운동이 점차 활발하게 번져나가면서 民族主義의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加味되었고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식자층의 지지를 얻은 汎民族運動의 성격을 띤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짧았던 이 운동의 壽命에 비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發明思想이 일반 대중은 물론 높은 담으로 격리된 형무소안까지 스며들어 囚人들의 발명출원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暗黑期에 있던 우리 民族일반에게 民族更生을 위한 方책을 科學技術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可能性을 비쳐주었다는 점이다.